

광주, 초3~4 · 중2 · 고1 등교수업

방역 절차 및 역할 안착으로 안정적인 등교수업 진행 복도 카페트, 마스크 걸이, 복도 분리대 등 안전 조치

초등3·4, 중2, 고1 학생의 2단계 등교수업이 3일 시작됐다. 코로나19로 3월 2일 개학이 연기되고 원격수업이 진행된 지 94일 만이다.

광주지역 학교들은 3일 아침 대부분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등교가 이루어졌다. 초·중학교는 지난주부터 등교수업이 시작되어 학생과 교직원 등등교 시 거쳐야 하는 방역 절차와 역할을 일주일 동안 수행하면서 익숙해진 탓에 혼란이 없었다.

특히 고등학교는 2주 전 고3을 시작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하면서 매우 미비점을 보완해 모든 학년 등교수업에 대비해 왔다. 학년별 시차등교를 안내해 등교 시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이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부모도 꾸준히 등교수업 일주일 전부터 매일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해 발열, 코로나19 관련 증상 등을 진단하고 이상 여부를 제출하는 등 가정에서부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이 매일 진행되면서 학교마다 학생 안전과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안전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과 학생은 1~2주 간 시행착오를 거치고 노하우를 쌓아가며 학교 자체적으로 안전을 생활화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실시하고 있다.

광주대성초등학교는 1층 현관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고 열화상카메라 측정을 받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녹색 카페트를 실내에 깔아서 운동화를 신고 복도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무등중학교는 학급 내 학생 책상 가림막을 설치해 수업 중에도 학생 간 비말이 옮기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급식실 탁자에 마스크 걸이를 설치해 음식을 먹는 도중 마스크를 벗어 걸어 놓음으로써 마스크 오염을 줄이고 보관의 편리성을 높였다.

금호고는 교실 내 청소함과 정리함 등 기자재를 복도로 옮겨 교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학생 간 이격거리를 넓혔다. 또한 밖으로 뺀 기자재는 복도 중앙에 배치

해 학생 이동로를 분리함으로써 학생 간 접촉과 밀집을 최소화하는데 활용했다.

또한 보건지원인력이 학교별로 20학급 이하 1명, 21학급~30학급 2명, 31학급~40학급 3명, 41학급 이상 4명이 배치돼 학생 안전과 방역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은 등교 시 발열체크, 일시적관찰실 지원, 실내 환기, 문손잡이 등 수시소독, 급식실 학생지도 지원 등 등교수업 시 필요한 다양한 학생 안전 조치를 지원하면서 교직원 업무경감 및 학생 안전을 함께 지키고 있다.

장항국 교육감은 "학생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등교수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청과 학교는 앞으로 남은 학년까지 등교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과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장성 서삼초, '신비로운 과학체험'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각종 프로그램 체험

장성 서삼초등학교(교장 김현주)는 2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과학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학년별 3D 프레임 제작과 함께 과학 꿈나무들을 찾아가는 '이동 과학교실' 프로그램 체험도 함께 실시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제공한 이 프로그램은 로봇댄스 관람을 시작으로, 천체관측, 전시물체험이 있었다. 이후 학생들은 학

년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학년군별로 3D펜 체험, 블록 코딩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견문을 넓히고 21세기 미래형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1학년 구승현 학생은 "처음 해 보는 3D펜 체험을 하며 과학이 신나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하였으며 6학년 전지영학생은 "과학관에 서만 해 볼 수 있었던 수준높은 체험을 학교에서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코로나 19 예방수칙을 지키면서도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을 계속 하고 싶다" 라고 하였다.

김현주 교장은 "이번 이동과학 교실 체험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교육과정 운영이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였으며, 마스크사용 수칙과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체험해 준 서삼초 학생들이 기뻐했다" 라고 말했다.

연대와 상생협력이 청소년교육 대안

영암교육지원청, 관내 청소년 관련기관 방문 협력방안 모색

전라남도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지난 2일 관내 지역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을 찾아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청소년 대안시설인 파티실, 체육활동실, 댄스연습실, 다목적실 등을 살펴보고, 좋은 아이디어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관련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냈다.

영암군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영암군청소년수련관은 장소 및 시설대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 및 위기학생지원과 대안학교를 운

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후 학생들의 활동을 함께 하는 방과후아카데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과 진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학교밖지원센터 등 여러 사업으로 하루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활동의 중심지로 불리고 있다.

김성애교육장은 학생들의 성장은 지역사회 모두의 다양한 역량이 함께 해야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영암군청소년수련관의 다양한 활동이 지역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상담복지센터 사업인 '포레상담자' 운영, '학교폭력 이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등은 두 기관이 잘 결합하고 있는 대표사업으로 앞으로도 학교나 학생들이 잘 이용하도록 홍보 지원하는 것이 영암교육지원청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한편, 영암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역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펼치고 있으며, 오는 9일(화)에도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정례회의를 통해 관내 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2020 진도영재교육원 온라인 개강식 개최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민의식)은 지난 2일 2020학년도 진도영재교육원 개강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자연과학영역 초5~6학년 29명, 예술영역 창, 가야금, 서화전공 38명으로 모두 67명의 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원이 쌍방향 회의 시스템에 활용하여 개강식에 참여하였다.

입학생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부모의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개강식에서는 진도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원격 수업의 방향, 수업 장소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개강식에서 진도교육지원청 민의식 교육장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융합할 줄 아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며, 잠재된 재능을 계발하는 영재교육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영재교육원은 "과학적 사고와 전통에 기반을 둔 예술을 바탕으로 창의와 인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에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 초등돌봄교실 원격 연수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허호)이 지난 2일 관내 초·중·고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전달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교사가 학생의 안전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비

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연수는 △2020년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안내 △2020년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주요내용 △등교수업 실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 △외부강사 선정을 위한 2020년 학교지원센터 운영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